

광주체고 체조 문건영, 2년 연속 태극마크 달았다

국가대표선발전서 개인종합 1위 내년 아시아·세계선수권 출전 광주체중 송채연 여자주니어 대표 오는 25일 진천 선수촌 입촌 예정

‘한국 체조 유망주’ 문건영(광주체고 3)이 2년 연속 태극마크를 달았다. 송채연(광주체중 2)은 생애 첫 주니어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문건영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강원 양구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 2024 기계체조 종합선수권대회 겸 2025년도 국가대표 및 후보선수 선발전에서 남자대표 개인종합 1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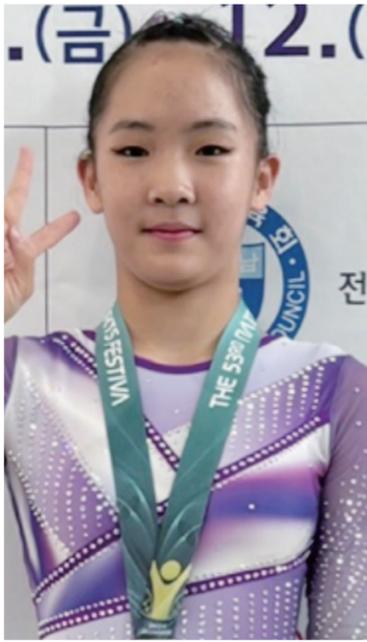
문건영은 기계체조 6개 종목인 개인종합 예선에서 마루 14.033점, 안마 13.500점, 링 12.800점, 도마 14.100점, 평행봉 13.700점, 철봉 12.133점을 기록해 합산 점수 결과 80.266점으로 태극마크를 거머쥐었다.

2위는 79.966점을 받은 김재호(한국체대 4), 3위는 79.800점의 허웅(제천시청)이다.



광주체고 문건영(왼쪽)과 광주체중 송채연이 지난 1일 강원 양구문화체육회관에서 끝난 2025년도 국가대표 및 후보선수 선발전에서 남자 시니어 국가대표와 여자 주니어 국가대표에 선발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년 남자 국가대표는 이번 대회 개인종합 예선 1~8위의 성적 순으로 선발했다.



광주체고·광주체중 제공

다. 문건영을 지도한 오상봉 광주체고 체조

감독은 “문건영이 개인 예선 마지막 종목인 철봉에서 기술을 펼치다가 낙하해 낮은 점수를 받는 등 실수가 있었음에도 개인종합 1위로 입상해 2년 연속 국가대표가 됐다”며 “지난 5월 아시아선수권대회서 다친 발목 부상이 거의 회복돼 대표팀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훈련을 소화하면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시 태극마크를 달게 된 문건영은 내년 6월 충북 제천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선수권대회와 10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 획득을 노린다.

문건영은 “올해는 발목 부상으로 국제대회에서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젠 100% 회복됐다. ‘다시 시작이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진해서 국제대회 메달을 목에 걸겠다”며 “내년 아시아선수권과 세계선수권을 목표로 체력운동을 통해 힘도 더 키우겠다. 스타트 점수를 높이기 위해 기술 난이도를 E난도로 높여 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채연은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열린 이번 선발전에서 여자주니어대표로 뽑혔다.

송채연은 도마(10.950점), 이단평행봉(10.400점), 안마(9.950점), 마루(10.650점) 등 4개 종목 합산결과 41.950점을 획득해 여자대표선발전 전체 19위, 여자주니어대표(15세이하) 1위를 차지했다.

여자주니어대표 2위는 정수은(40.950점·창원북면초 6), 3위는 이세연(40.900점·서울체중 1)이 기록했다.

2025년 여자주니어대표는 이번 대회 개인종합 예선 1~3위의 성적 순으로 선발됐다.

광주체중에서 주니어 국가대표로 선발된 건 2017년 채수빈(호남대 3년·광주시체육회) 이후 7년 만이다.

홍은식 광주체중 체조감독은 “(송)채연이가 현재 주니어에서는 전체 랭킹 1위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국가대표팀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기술을 보완하면 주니어 아시아선수권에서 입상이 가능하고 향후 시니어 국가대표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수”라고 말했다.

문건영과 송채연은 오는 25일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입촌해 내년 국제대회를 준비한다.

최동한 기자



지난 2일 청주 김수녕국제양궁장에서 끝난 2025 국가대표 2차선발을 통과한 광주·전남 공사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수현, 이은경, 오예진, 안산, 김수린, 최미선, 이승윤.

광주·전남 공사 7명, 국대 2차 관문 통과

2025 양궁 국가대표 2차 선발전 남자부 이승윤 18위로 20강 안착 여자부 김수린 등 6명 3차전 진출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공사 7명이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태극마크를 향한 2차 관문을 통과했다.

대한양궁협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충북 청주 김수녕양궁장에서 2025년도 양궁 국가대표 2차 선발전(리커브)을 개최했다.

광주·전남 양궁은 2차 선발전에서 7명이 생존했다.

남자부에서는 이승윤(광주 남구청)이 배점합계 46점을 기록, 18위로 20강에 안착하며 광주·전남 남자 선수로 유일하게 3차 선발전에 진출했다.

이승윤은 “내년 세계선수권대회가 안방에서 열리는 만큼 조연 아닌 주연으로 그 자리에 꼭 서고 싶다”며 “다시 시작”이라는 각오로 초심으로 돌아가 선발전 과정에서 드러난 아쉬운 부분을 보완해 3차선발전에서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려 태극마크를 달아 남구청 임직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남자부 1위는 김우진(청주시청·94점)이, 2위는 김제덕(예천군청·91점)이 차지했다.

여자부에서는 1차 선발전을 3위로 통과한 김수린(광주시청·84점)이 3위를 기록했다. 파리올림픽 여자 양궁 10연패 주역 남수현(순천시청·77점)이 5위, 2020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광주은행텐텐양궁단·74점)이 8위,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미선(광주은행텐텐양궁단·71점)이 9위, 2024 여자양궁 국가대표 오예진(광주여대·69점)이 10위, 이은경(순천시청·43점)이 17위로 2차 관문을 통과했다.

여자부 1위는 신홍강호 염혜정(경희대·90점)이, 2위는 강채영(현대모비스·88점)이 차지했다.

2차 선발전을 통과한 남녀 각 20명은 내년 3~4월로 예정된 3차 선발전에 나선다.

이들은 역배점 없이 원점에서 다시 치열한 경쟁을 치러 남녀 각 8명의 2025 양궁 국가대표를 선발한다.

국가대표 남녀 8명은 최종 순위 평가전을 치러 남녀 각 상위 3명이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출전 티켓을 거머쥐게 된다.

1985년 서울, 2009년 울산에 이어 16년 만에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내년 9월5일부터 12일까지 광주 국제양궁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동한 기자



이범호(왼쪽) 감독이 3일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3년 계약을 맺고 심재학 단장과 악수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V12’ KIA타이거즈, 2연패 도전 가속도

이범호 감독, 3년 26억에 재계약 김주찬 벤치·김민우 수비 코치 영입



2024시즌 통합 우승을 차지하며 ‘V12’를 달성한 KIA타이거즈가 연패 도전에 가속도를 붙인다. 2024시즌 KBO리그 통합 우승을 일궈낸 이범호 감독과 3년 재계약을 맺었고, 2017년 통합 우승의 공신인 김주찬 벤치 코치와 내야 강화를 위해 김민우 수비 코치를 다시 품으며 코치진을 강화했다.

KIA는 3일 이범호 감독과 3년간 총액 26억원(계약금 5억원·연봉 5억원·옵션 6억원)에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감독은 올 시즌을 앞두고 2년 계약을 맺고 KIA의 지휘봉을 잡았다. 계약 기간은 내년 종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KIA는 이 감독이 계약 첫해부터 통합 우승이라는 최상의 성과를 내자 기존 계약(2년)을 상호 합의 하에 파기하

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 새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3년 총액 26억원은 현 10개 구단 감독 중 최고 대우의 규모다.

이 감독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구단에 감사 드린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신뢰를 보내준 구단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에서 우승을 결정지은 그날의 함성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다. 통합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타이거즈 팬들의 응원과 성원 덕분”이라며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 임기 내에 우승 트로피를 다시 들어올릴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KIA는 또 이날 김주찬 벤치 코치와 김민우 수비 코치를 영입했다. 벤치 코치는 이범호 감독의 보좌직으로 시즌 중 데이터로 바탕으로 경기 운용에 여러 조언을 전하는 역할이다.

김 벤치 코치는 총암고 졸업 후 삼성과

이은조와 롯데아이언츠를 거쳐 2013시즌을 앞두고 자유계약(FA)으로 KIA 유니폼을 입은 바 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KIA에서 활약한 김 벤치 코치는 2016년 외야수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뒤 2017년에는 주장을 맡아 열한 번째 우승을 이끌었다.

2020시즌을 끝으로 현역에서 물러난 김 벤치 코치는 2021년 두산베어스 수비 및 주루 코치로 지도자에 입문해 작전 코치와 타격 보조 코치 등을 거쳤고, 올해는 롯데로 옮겨 타격 코치를 역임했다.

김 수비 코치는 한양대 졸업 후 현대 유니콘스와 우리하이로즈, 서울하이로즈, 넥센하이로즈를 거쳐 2014시즌을 앞두고 2차 드래프트로 KIA에 입단했다. 2016 시즌 중 은퇴 후 전력분석원으로 전환한 김 수비 코치는 2017년 퓨처스 수비 코치로 본격적으로 지도자에 입문했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수비 코치를 맡았다.

한규빈 기자